

부모의 통제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Parental Controls and Antisocial Behavior of Children

김 선 애**

Kim, Sun Ae

김 준 호***

Kim, Joon Ho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ive parental controls by age of child.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were 10, 12, 15, and 18-year-old school boys residing in Seoul. A total of 1,468 boys was used in the final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of SPSS PC^{*} were utiliz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mpact of various parental controls on antisocial behavior varied with developmental stages of the children. Younger boys were more susceptible to direct controls, while indirect controls proved more effective for older youngsters.

I. 서 론

반사회적 행동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이라는 점에서는 연구자들간의 이의가 거의 없으나 가족의 어떠한 측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훈육방식, 양육태도, 애착,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도덕성의 내면화

등을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력을 갖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Baumrind, 1971; Elliott & Voss, 1974; Hirschi, 1969; Martin & Hetherington, 1971; McCord, 1979; Nye, 1958; Olweus, 1980).

이와 같이 부모는 훈육방식을 통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녀의 가정 외 활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반경 및 정도를 통해, 또한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간

* 본 논문은 1995년도 상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상명여대 강사

***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

접적으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훈육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통제와 부모-자녀간의 애착에 근거한 간접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유형을 분류하는 데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통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이 두 통제유형의 영향력은 학문분야에 따라 강조되는 정도가 다르다. 대체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주로 직접통제를, 사회학에서는 간접통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그간 심리학과 사회학이 동일한 문제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해온 것과 이를 학문간의 교류 부족으로 인해 통합이 결여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은 상반되는 두 학문의 입장을 나름대로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사회적 행동에서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의 영향력에 대한 각기 다른 결과와 강조는 연구대상의 연령층이 상이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구대상이 아동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통제가, 청소년 기일 경우에는 간접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통제 혹은 간접통제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상반된 입장은 연구대상의 연령을 간과한 결과일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하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통제유형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학의 비행이론과 아동학과 발달심리학에 기반한 공격성이론을 종합하

고 연구대상을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로 확대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통제유형의 영향력은 변화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통제유형 분류

기존의 이론과 연구들은 반사회적 행동에 관련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들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Gove & Crutchfield, 1982; Hagan, Simpson, & Gillis, 1987; Hirschi, 1983; Laub & Sampson, 1988). 가족요인 중 반사회적 행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가족의 구조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Pearl, 1985). 따라서 현재 학자들은 가족의 기능에 주목하여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가족의 기능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효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가족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는 가족 기능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바탕을 둔 친밀감, 의사소통, 동일시, 감독, 훈육, 규범 등이 있으며, 이들은 부모에 의해 행해지는 통제유형으로서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Rankin과 Wells(1990)은 가족의 기능을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직접통제를 ① 규범적 규칙, ② 부모의 감독(monitoring), ③ 훈육 또는 처벌로, 간접통제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으로 보았다. Nye(1958)의 경우는 ① 제한 ② 부모의 감독(supervision) ③ 처벌을 직접통제라 하였으며, 애착을 간접통제로 분류한다. 이와는 달리 Patterson(1990)은 부모의 양육변인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① 부모의 훈육, ② 부모-자녀간 애착, ③ 거부, ④ 부모의 감독으로 세분화하였다. Patterson이 말한 부모의 훈육은 직접통제 유형에 해당하며, 애착과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의해 내면화된 통제인 거부는 간접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Patterson의 통제 유형의 분류는 직접통제(훈육)와 간접통제(애착, 거부), 부모의 감독 등의 세 가지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범죄 사회학 이론에서 예외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반사회적 행동에서 가족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사회통제이론가인 Hirschi(1969)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해졌거나 끊어졌을 때 비행행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를 애착, 몰두, 관여, 신념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Hirschi는 이러한 유대 가운데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을 자녀의 사회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 변인으로 규정지으며 이를 ① 부모의 감독, ② 의사소통의 친밀성, ③ 감정적 동일시로 세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거하면 Patterson이 말한 부모의 감독은 간접통제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 간에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통제유형으로 분류하는 데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Nye를 비롯한 Rankin과 Wells는 부모의 감독을 직접통제로, Patterson과 Hirschi는 간접통

제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각 학자들에 따라 부모의 감독이 갖고 있는 다른 성질에 주목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의 감독을 직접통제로 분류하는 것은 부모가 세세히 자녀의 일상을 감독하고, 자녀의 친구와 활동을 결정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 자녀의 일상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의 발휘로 부모의 감독을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문제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감독을 간접통제로 분류하는 것은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일상에 관한 실질적인 감독이지만, 부모의 감독 자체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이 통제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감독을 받는다는 느낌을 줌으로 자녀가 ‘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것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이 통제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견해와 기대에 대한 자녀의 고려도가 부모의 감독의 통제효과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감독이 갖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제역할은 인습적 규범에 대한 순종을 얻기 위해 내려지는 즉각적인 훈육의 적용으로 직접통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기초하는 간접통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통제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훈육으로 정의하고 부모의 감독을 Hirschi의 이론에 근거하여 간접통제로 간주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유형 중 부모의 훈육방식을 직접통제로, 부모-자녀간의 일반적인 관계에 근거하는 부모-자녀 친밀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을 간접통제로 분류하고자 한다.

2. 부모의 통제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는 이론과 관점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효율성과 영향력 여부가

다르게 주장되고 있다. 특히 사회학과 발달심리학에서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에 대한 논란은 제법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대부분 간접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Hirschi와 Nye로 대표되는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직접통제가 반사회적 행동의 통제에 제한된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Nye(1958)는 자녀가 가정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내의 장소에 위치할 경우에만 직접통제가 유용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자녀가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간접통제의 영향력은 소멸한다고 보았다. Hirschi(1969) 역시 간접통제의 중요성을 기각하고, 범죄에 관여될 유혹을 받을 때 부모가 심리적으로 협조하는가의 여부를 강조하고, 가족의 중요한 영향력을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을 통한 부모의 간접통제는 가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많은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통제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ernkovich & Giordano, 1987; Gardner, 1984; Elliott & Voss, 1974; Hindelang, 1973; Hirschi, 1969; Jensen, 1972; Nye, 1958; Rankin, 1983).

이와는 달리 간접통제의 영향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과 학자들도 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직접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최근 들어 직접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통제에 대한 개념적인 구별이 증명되면서, 직접통제는 간접통제 만큼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Cernkovich & Giordano, 1987; Patterson, 1980, 1982; Smith & Paternoster, 1987; Wells & Rankin, 1988, 1990). 특히 아동학에서는 반사

회적 행동 중 비행보다는 공격성과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모의 처벌과 훈육의 효율성을 강조한다(Rankin & Wells, 1990). 대부분의 비행이론과는 달리 Patterson으로 대표되는 사회학 이론의 제 2세대 연장 이론인 강압이론은 직접통제를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관련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강압이론은 숙련되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부적절하게 강화하고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에 실패함에 의해 오히려 반사회적인 자녀를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Patterson(1980, 1982)에 의하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에 부모가 유관성을 갖는 적절한 부정적 제재를 가져야만 한다. 강압이론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는 훈육의 형태로 가해지는 처벌이 일관성이 있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전제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Rankin과 Wells(1990)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처벌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간접통제로서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는 학문분야에 따라 강조되는 정도가 다르며,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일관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합의되지 못한 직접통제와 간접통제의 영향력에 대한 논쟁의 원인을 동일한 문제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려고 한 점과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고려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제유형의 효율성과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연령을 통틀어 직접통제가 효율적이라거나, 간접통제만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는 통제유형이 있으리라

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다음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된다.

인간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학적 이론은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이론과, Glueck과 Glueck으로 대표되는 다요인 접근방법과 사회학습이론을 들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개념적으로 충분히 재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목을 덜 받기는 하지만 인지발달이론도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된다.

Piaget의 지능발달과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로 대표되는 인지발달이론은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기대를 제공한다. 인지발달이론은 인간 유기체가 순서적으로 연속적인 방법에 의해 발달함을 가정한다. 발달에는 단계가 있고 인간은 각각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일련의 행동을 나타냄으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지적, 도덕적 추론과정은 나이 어린 아동에 비해 더 발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Piaget(1932)에 의하면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규칙이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규범이나 규칙이 외부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 판단하는 타율적 도덕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다가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성인에 의해 부여된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은 단지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계약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자율적 도덕기에 이르른다. Kohlberg(1963) 역시 도덕판단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된다는 Piaget의 주장에 동의하며 복종과 처벌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시기로 발달해 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한 Piaget와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영향력의 변화를 설명하는 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들의 도덕발달

이론은 연령이 낮을수록 훈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양육자의 처벌에 의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적인 훈육보다는 개인의 내면화된 가치에 의해 인간이 규범이나 규칙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되며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적 관점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자녀가 어릴수록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훈육과 처벌인 직접통제가 효과적이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자녀 관계에 기반을 둔 내면화된 부모의 규칙과 기대인 간접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인지발달이론은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선행발달 과업으로 통제, 안전, 중요한 타인에의 신뢰감, 중요한 타인과의 일관된 상호작용, 자신감의 발달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발달적 욕구와 과업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기에 들어와 행동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Bronfenbrenner(1974)는 부모와의 애착이나 감독, 지지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은 승인되고 수용되는 행동을 하려는 시도를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청소년기에 해당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는 부모의 간접통제가 직접통제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연령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모 통제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가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해주는 또 하나의 토대가 있다. 이 역시 연령에 의한 변화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부모의 감독을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가장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학습이론의 제 2세대 연장이론이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는 더 이상 가정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 위치하지 않고 그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한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훈육과 처벌이 불가능해지며 자녀는 부모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무감독 상태로 행동하게 된다. 무감독 상태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어(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부모는 청소년기에 도달하여 친구집단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자녀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기라는 단계가 부모의 통제유형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독립적이기를 요구하는 청소년기에는 이전까지 효과적이던 직접통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으로의 관여 기회가 증가되는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적절한 통제와 보호막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통제유형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결속감인 간접통제이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으로는 부모와 떨어져 있으나 항상 부모가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기 초기와 중기에 걸쳐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간접통제에 해당하는 부모의 감독의 중요성은 반사회적인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 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Patterson & Capaldi, 1991).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간접통

제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부모의 적절한 통제유형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릴수록 부모의 직접통제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접통제가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간접통제가 비효율적이며, 연령이 높을 경우에는 직접통제가 쓸모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가정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연령에 따라 직접통제와 간접통제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행해지는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는 전연령을 통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하게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자녀가 현재 해당하는 연령층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 통제유형의 논쟁은 기존의 연구들이 각기 다른 연령에 속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결과를 전연령층에 일반화 시키는데서 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연령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 통제유형의 연령에 따른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모통제 유형을 경험한다고 생각되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일차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국민학교 1, 2학년 아동은 응답능력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아동기 초기를 대표하는 학년

으로 국민학교 3학년을, 중기로는 5학년을 설정하였고,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기 중기를 대표한다고 보이는 고등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효과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반사회적 행동 중 공격적 행동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Macoby & Jacklin, 1980; Whiting & Edwards, 1973), 청소년기에 저지르는 비행의 종류와 그 정도도 성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통제는 성별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최근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Cernkowich & Giordano, 1987; Hill & Alkinson, 1988; Seydlitz, 1991). 여기에 덧붙여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화를 위해 강남과 강북지역을 구분하여 두 지역에서 발달단계별로 2개 학교를, 각 학교에서 2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1579부의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으며, 그 중 오기, 누락,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한 111부를 제외하고, 아동기 초기 315명, 아동기 중기 368명, 청소년기 초기 376명, 청소년기 중기 409명 도합 최종 1468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문제행동은 반사회적 행동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오로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가 전제되었거나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추론되는 행동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반사회적 행동은 공격성과 비행으로 세분화하며 공격성은 공격 행동을 통해 측정하기로 한다. 공격행동은 ‘타인에게 육체적 혹은 심리적인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비행은 ‘성인이 하였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행동과 성인이 하였다면 문제행동으로 규정되지 않으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규정되는 행동인 지위비행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본다.

(1) 공격성의 측정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신체적 공격성의 측정을 위해 7문항, 언어적 공격성의 측정을 위해 7문항이 최종 설문문항으로 결정되었다.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각각 Cronbach's α .81 .83으로 신뢰성 있게 나타났다. 공격성 측정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하게 하였다.

(2) 비행의 측정

본 연구에서의 비행은 일반적인 비행과 청소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 즉 청소년이므로 비행으로 규정되는 행동인 지위비행으로 구분된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의 6-11세와 12-16세용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중 비행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문항과 김준호(1993)의 비행 측정문항을 참고로 하여, 일반비행은 기물파괴, 갈취, 절도와 학생의 신분으로부터 일탈된 가출과 교사에게 대드는 행동 등을 포함시키고, 지위비행은 음주, 흡연, 당구장이나 카페, 디스코장 출입 등과 같이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문제행동으로 규정되는 행동을 포함시켜 문항을 구성한 뒤,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여 일반비행 9문항과 지위비행 5문항을 최종 구성하였다. 일반비행과 지위비행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1 .87로 나타났다.

일반비행 항목은 국민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이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모두에게 응답도록 하였으나, 지위비행의 항목은 국민학생에게 물기에 적합치 않다는 판단 하에 중고등학생에게만 국한하여 질문하였다. 비행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하게끔 측정하였다.

2) 독립변인의 측정

(1) 직접통제의 측정

직접통제 변인은 일탈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과 즉각적인 처벌의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훈육의 정당성, 훈육의 일관성, 처벌의 강도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훈육의 정당성은 부모의 자녀 훈육시 자녀가 부모의 판단과 처벌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6문항으로, 훈육의 일관성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간의 훈육의 일관성을 4문항을 통해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 분석결과 두 요인으로 묶여 그 타당성을 보여주었으며, 각각 Cronbach's α .60 .63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낸다.

처벌의 강도는 '부모님께서 야단치거나 별을 주실 때 때리시는 편입니까'로 질문해 자주 때리신다, 가끔 때리신다, 거의 때리시지 않는다, 전혀 때리시지 않는다 등 네 가지 중 한 예로 대답하게끔 하여, 각각 1점, 2점, 3점, 4점으로 부호화 하였다.

(2) 간접통제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간접통제를 부모-자녀간 친밀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 세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부모-자

녀 친밀도는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친밀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차원은 부모와의 대화빈도와 대화의 질을 의미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 차원은 자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같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말한다. 이상의 간접통제의 세 가지 하위차원은 모두 각각 다섯 항목으로 질문되어 4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가 친밀하며, 대화수준이 높고, 부모의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접통제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α .80 .76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1회의 예비조사와 1회의 본조사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4년 2월 12일에서 20일에 걸쳐 개인면접을 통해 구조화된 질문지와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4년 3월 16일에서 3월 22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집단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오기, 누락, 파손 등으로 인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따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유형은 2차 요인분석을 통해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로 분류되는가를 확인한 후, 연령에 따른 통제유형의 영향력 변화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든 통계 처리는 SPSS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통제유형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유형으로 훈육의 일관성, 훈육의 정당성, 처벌의 강도, 부모의 감독, 부모-자녀 친밀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 여섯 변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훈육의 일관성, 훈육의 정당성, 처벌의 강도 세 변인을 직접통제로, 부모의 감독, 부모-자녀 친밀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세 변인을 간접통제로 분류하였다. 이론에 근거한 이러한 분류가 경험적인 조사에서도 이론적인 가정에 맞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통제유형의 요인분석

	요인 1	요인 2	communality
부모-자녀 의사소통	.82	.01	.67
부모-자녀 친밀도	.80	.22	.69
부모의 감독	.73	-.04	.50
훈육의 일관성	.37	.68	.61
훈육의 정당성	.10	.67	.46
처벌의 강도	-.21	.64	.46
Eigenvalue(Pct of var)	2.20(36.7)	1.24(20.7)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섯개의 부모통제 유형은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요인 1은 2.20의 Eigenvalue를 갖고 있으며 요인 2는 1.24의 Eigenvalue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요인 1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친밀도, 부모의 감독 세 변인이 포함되었으며, 모

두 .73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요인 2는 각각 .68과 .67, .64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훈육의 일관성과 훈육의 정당성, 처벌의 강도 세 변인이 묶여 있다.

요인 1과 요인 2는 모두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요인 2는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통제이고, 요인 1은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제재와 금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에 자녀가 관여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 1과는 다른 형태의 통제이다. 따라서 요인 1과 요인 2는 자녀의 그릇된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통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 작용하는 통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섯 가지 변인은 모두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통제기제로 작용하지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의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제재를 하는 요인 1에 해당하는 통제유형을 간접통제로 명명하고, 훈육과 처벌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에 의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금지하는 통제유형인 요인 2를 직접통제로 명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제연구에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의 관련변인으로 상정되어지던 여러 부모통제유형들을 이론에 의거하여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로 분류한 본 연구의 척도 구성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연령에 따른 통제유형의 영향력 변화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아동기 초기와 아동기 중기, 청소년기 초기와 청소년기 중기로 분류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영향력 있는 부모의 통제유형이 변화하는가를 알아보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다음 〈표 2〉는 연령별로 조사 대상자를 분류

하여 직접통제와 간접통제가 각각의 연령층에 해당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표 2〉 통제유형과 반사회적 행동의 회귀분석¹⁾

반사회적 행동		R ²	직접통제	간접통제
아동기	신체적 공격성	.05***	-.22***	-.05
	언어적 공격성	.05***	-.22***	-.02
	일반비행	.06***	-.23***	-.07
중기	신체적 공격성	.12***	-.35***	-.02
	언어적 공격성	.10***	-.31***	-.05
	일반비행	.08***	-.28***	-.07
청소년기	신체적 공격성	.04***	-.19***	-.03
	언어적 공격성	.05***	-.20***	-.07
	일반비행	.03**	-.14***	-.09
	지위비행	.06***	-.19***	-.13*
청년기	신체적 공격성	.09***	-.20***	-.17***
	언어적 공격성	.09***	-.15***	-.22***
	일반비행	.06***	-.10*	-.21***
	지위비행	.12***	-.16***	-.28***

*P<.05 ** P<.01 ***P<.001

〈표 2〉를 보면, 간접통제는 아동기 초기와 아동기 중기의 반사회적 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로지 직접통제만이 아동기 초기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잘못한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정당한 즉각적인 훈육이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기 초기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일반비행에는 간접통제의 영향력은 미치지 않고 직접통제의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 직접통제에 의해 세 가지 하위차원의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초기의 지위비행은 직접통제에 의해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과, 비록 강하지는 않으나 P<.05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간접통제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초기는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사소한 비행에 쉽게 노출되며 가정보다는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아동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부터는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

1) 〈표 2〉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의 계수는 표준편회귀계수이다.

에서도 부모의 감독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간접통제가 유용해진다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중기는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임을〈표 2〉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기 중기의 반사회적 행동의 네 가지 하위차원은 부모의 통제유형에 의해 의미 있게 설명될 수 있다($P<.001$). 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직접통제와 간접통제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중기에 들어와서는 훈육에 의한 통제뿐만이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 의한 간접통제가 자녀가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재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언어적 공격성과 일반비행,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통제와 간접통제의 상대적 크기의 변화마저 나타났다. 즉 직접통제의 영향력보다도 간접통제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중기에는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직접통제보다 간접통제가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 중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며 자신의 행동에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며 친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차별적 접촉이론, 하위문화이론 등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친구의 영향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친구의 영향이 증대되면 될수록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보다 밖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커진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가능한 직접적인 통제의 영향력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 부모의 감독 등 간접통제의 영향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접통제의 영향은 청소년기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청소년

기 중기에는 직접통제 보다 효과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는 아동기 초기에서 청소년기 초기까지의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일반비행 부모의 통제유형 중 직접통제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청소년기 초기의 지위비행과 청소년기 중기의 모든 반사회적 행동에는 직접통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간접통제의 영향력도 유의미하며, 특히 청소년기 중기에는 간접통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간접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기 중기에 간접통제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면서 직접통제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약화될 뿐이라는 연구결과에 주의해야만 한다. 청소년기 중기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자녀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 어린 주의가 자녀의 행동을 지켜주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가 자녀에게 반사회적 행동을 금지시키는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가능케 해준다. 이러한 까닭에 청소년기 중기에 간접통제가 효율적이 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직접통제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전혀 아무런 통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기 중기에도 직접통제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청소년기 중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부모의 일관성 있고 정당한 훈육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간접통제와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라 하겠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연령 변화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유용한 부모의 통제유형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갖고 행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통제유형 중 훈육의 일관성과 훈육의 정당성, 처벌의 강도는 직접통제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친밀도, 부모의 감독은 간접통제로 분류되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 통제유형의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여,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직접통제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접통제가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행동의 하위차원인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일반비행의 경우에는 아동기 초기에서 청소년기 초기에 걸쳐 부모의 통제유형 중 간접통제의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직접통제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다가, 청소년기 중기에 이르러서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통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간접통제의 영향력도 유의미해 지면서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초기부터 직접통제와 간접통제의 영향력이 모두 존재하는데, 통제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청소년기 초기에는 직접통제가, 청소년기 중기에는 간접통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효과적인 부모통제유형이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어, 연령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부모의 통제유형의 상대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통제유형의 영향력에

관한 논쟁은 자녀의 연령을 간과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통제유형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가 있을 뿐,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는 모두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범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범죄가 점점 폭력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신체와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의 급증이라 볼 수 있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범죄의 과반수 이상이 인구 비율상 얼마 안되는 청소년층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김준호, 1994).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 행동은 상황과 시기에 안정성을 갖게 되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특성이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발전되고 성인기의 범죄로 이양될 가능성을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Lefkowitz, Eron, Walder, & Huesmann, 1977; Mussen, Conger, & Kagan, 1984; Olweus, 1979). 부모의 부적절한 통제와 가족의 갈등적 분위기로 인해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는 더 나아가 청소년 비행과 사회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연진영, 1992). 이러한 발달 추정이 옳다면 범죄의 억제를 위한 예방책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억제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통제유형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변인으로서의 부모의 통제유형에 대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어,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에서의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 회피가 암묵적으로 행해져 자녀의 탓이나 사회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부모의 통제유형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 부모의 책임을 일깨워 준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훈육이 정당하고 일관되게 행해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감독하며 양질의 대화를 나누고 부모-자녀 관계가 친밀하다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현상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학문간의 교류의 결여로 생기는 통합의 결핍을 극복하고자 연령에 따른 통제유형의 변화 추이를 보는 데에 하나의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횡단적인 조사설계를 통해 연령층을 넷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층의 결과를 상호 비교함에 그쳤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발전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종단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가족과 반사회적 행동에 관해 행해지는 연구에서 안고 있는 주요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연령과 성별을 간파하는 것이다. 반사회적 행동의 비율은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자녀의 연령은 부모통제유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다양성은 성별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공격성과 비행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통제유형도 자녀의 성별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에도 성별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관성 없이 제시되고 있는 결

과들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 통제유형의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간파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된 첫걸음으로서, 연령에 따른 부모 통제유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남아로만 제한하였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여아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되고, 더불어 연령과 성별을 모두 고려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준호(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집.
- (1994). 한국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5(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집.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chenbach & Edelbrock.(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University of Vermont.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 (1), 12.
- Bronfenbrenner, U.(1974). The roots of alienation. In N. B. Talbot(ed.), *Raising children in modern america*. Boston:Little Brown.
- Cernkovich, S. A. & Giordano, R. C.(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 Criminology*, 25, 295-321.
- Elliott, D. S. & Voss, H. L.(1974). *Delinquency and dropout*. Lexington:D. C. Heath and Co..
- Gardner, R. L.(1984).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home and juvenile delinquency:A Critique of the current literature. *Deviant behavior: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2, 109-167.
- Gove, W. R. & Crutchfield, R. D.(1982).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Sociological Quarterly*, 23, 301-319.
- Hagan,J., Simpson,J., & Gillis, A. R.(1987). Class in the household: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788-816.
- Hill, G. D. & Alkinson, M. P.(1988). Gender, familial control,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 127-149.
- Hindelang, M. J.(1973). Causes of delinquency: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 471-487.
- Hirschi, T.(1969). *Causes of ddinqency*. Berd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83). Crime and the family. In J. Q. Wilson(ed.), *Crime and public policy*(pp. 53-68). San Francisco:ICS Press.
- Jensen, G. F.(1972). Parents, peers and delinquent action:A test of the defferential associatio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562-575.
- Kohlberg, L.(1963). The developmetn of chil-
- dren's orientations toward a moral order:1.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 *Vita Humane*.
- Laub, J. H. & Sampson, R. J.(1988). Unraveling families and delinquency:A reanalysis of the Gluecks' data. *Criminology*, 26, 355-380.
- Lefkowitz, M. M., Eron, L. D., Walder, L.O., & Huesmann, L. R.(1977). *Growing up to be violen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New York:Pergamon Press.
- Macoby, E. E. & Jacklin, C. N.(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artin, B. & Hetherington, E. M.(1971). *Family interaction and aggression, withdrawal and nondeviancy in children*(Progress Report). University of Wisconsin,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McCord, J.(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9), 1477-1486.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New York:Harper & Row.
- Nye, F. I.(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John Wiley & sons, Inc..
- Olweus, D.(1979). Stability and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 (1980). The consistency issue in

- personality psychology revisited-with special reference to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377-390.
- Patterson, G. R.(1980). Mothers: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5, Serial No. 186), 1-64.
- (1982). *Coercive family process:A social learning approach*, Vol. 3. Eugene: Castalia Publishing Company.
- (1990).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family interac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Patterson, G. R. & Capaldi, D. M.(1991). Antisocial parents:Unskilled and vulnerable.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Eds.), *Advances in family research, 2:Family transitions*(pp. 195-218),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1992). *Antisocial boys:A social interactional approach*, Vol. 4. Eugene:Castalia Publishing Company.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Pearl, A. J.(1985). *The Familial inter-relationship patterns, socializ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An integrated theory and research*. Ph. D. Dissertation at Western Michigan University.
- Piaget, J.(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Kegan Paul.
- Rankin, J. H.(1983).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Social Problems*, 30(4), 466-479.
- Rankin, J. H. & Wells, L. E.(1990).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s and direct controls on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2), 140-165.
- Seydlitz, R.(1991). The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parental control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23(2), 175-201.
- Smith, D. A. & Paternoster, R.(1987). The gender gap in theories of deviance: Issues and evid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4, 140-172.
- Whiting, B. B. & Edwards, C. P.(1973). A cross-cultural analysis of the behavior of children aged 3-11.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1, 171-188.